

崇義里滯雨

李賀

落莫誰家子，  
來感長安秋。  
壯年抱羈恨，  
夢泣生白頭。  
瘦馬秣敗草，  
雨沫飄寒溝。  
南宮古簾暗，  
濕景傳笳籌。  
家山遠千里，  
雲腳天東頭。  
憂眠枕劍匣，  
客帳夢封侯。

승의리 체우

이하

쓸쓸하구나, 어느 집 자식이기에  
돌아와 장안 가을을 느끼는가.  
한창 나이에 떠도는 나그네 되더니  
흰 머리 된 것 꿈에 보고 울었노라.  
여윈 말 시든 풀 먹이는데  
빗방울 차가운 도랑에 떨어진다.  
남쪽 궁전은 발을 드리운 듯 흐릿하고  
촉촉한 풍경 속, 때 알리는 종소리.  
고향 집은 천 리에 먼데  
구름은 동쪽머리 하늘에 드리웠구나.  
시름에 지쳐 칼 상자 베고 잠들면  
나그네 장막 안에서 제후되는 꿈이나 꾸려나.

